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3. 26(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상북도, 도정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 코로나 19조기 종식과 종식 이후 대응하는 혁신계획	법무혁신 담당관	
② **경북도,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컵(cup)과일 이어져!**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21백만원 긴급 지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컵(cup)과일 공급	농업정책과	
③ **경북도, 스마트농업 원예단지 조성사업 유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이어 3연속 공모선정 ’21년까지 포항시 흥해읍 약성리 일원 48ha(32농가), 38억원 투입	친환경농업과	
④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세무대리인이 무료로 지원!** 전국 최초 조례개정을 통해 발 빠르게 납세자권리보호 추진	법무혁신 담당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6(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작 성 자	과 장	강 돈 영	
			팀 장	오남현	주무관 최한별
		연 락 처	054-880-2256		

경상북도, 도정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

- 코로나 19조기 종식과 종식 이후 대응하는 혁신계획 -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도정혁신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북도가 수립·확정한 혁신계획은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 이후 달라진 경북도의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 농업인 소득증대, 청년 일자리, 영세중소기업 활성화 등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혁신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앞서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변화하는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청 앞마당에 공룡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지사 출입문에 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 사례를 교훈삼아 변화하는 도정을 강조해 왔다.

경북도가 추진하게 될 도정혁신 실행계획을 보면 도정전반에 사회가치를 구현하는 분위기 확산, 도민의 참여 및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신뢰받고 일하는 혁신도정 구현을 비롯한 3대 전략과 8대 과제 38개 시책이 망라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소멸 극복 모범모델「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농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스마트 팜 혁신 조성」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도정운영과 코로나 19대응「중소기업·소상공인 3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금융지원」, 경북형 면 마스크 보급 등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유튜브(보이소 TV)」 운영, 저출생 극복 도민참여 시스템 구축 등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과 「청사 내 공공개방시설」 개방, 농산물 기상재해 예방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 등 공공자원 공유를 통한 열린 경북을 실현한다.

또한 스마트워크 도정, IoT기술 적용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렌드 기반 관광마케팅 혁신 등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부하자」,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해피댄스(happy dance)」, 종이 없는 회의문화, 비대면 보고, 전자결제 강화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 마인드 개선과 일하는 방식혁신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말로 강한 것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공룡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6(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백승모	주무관 제갈승
		연락처	054-880-3317		

경북도,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컵(cup)과일 이어져!

-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21백만원 긴급 지원 -
-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컵(cup)과일 공급 -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 컵(cup)과일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컵과일 공급 : 3월 9일부터 21일간 코로나19 의료기관(9개소) 매일 2,400개씩 공급

경북도는 김천혁신도내에 소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21백만원을 출연하고 도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환자들에게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 6개소와 도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하고 있는 컵(cup)과일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주로 학생들의 간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컵(cup)과일은 최근 개학연기로 공급처가 크게 줄어들면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19 의료기관에 공급되면서 의료관계자들과 환자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은 물론 공급업체의 판매 어려움 해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 안산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 교통안전공단은 도로 및 철도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자동차 성능시험연구 업무를 주로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 교통약자 안전교육, 찾아가는 자동차 검사, 지역 농산물 구매 및 직거래 장터 운영 등 평소에도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5천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도 지원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컵과일 공급으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 빠른 시일 내로 위기가 극복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코로나19 의료기관에서 컵과일 호응도가 높다” 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식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컵과일 공급에 도움을 주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6(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 성 자	과 장	조 환 철	
			팀 장	정주호	주무관 김준호
		연 락 처	054-880-3385		

경북도, 스마트농업 원예단지 조성사업 유치!

-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이어 3연속 공모선정 -

- ’21년까지 포항시 흥해읍 약성리 일원 48ha(32농가), 38억원 투입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흥해읍 약성리 88번지 일원 48ha에 32농가가 참여해 ’21년까지 2년간 국비(70%)와 지방비(30%)를 포함 총 38억원*(국비 27, 지방비 11)을 투입해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도로, 용배수로 개선, 통신인프라 구축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1년차(‘20년) 사업비 : 1,541백만원(국비 1,079백만원, 지방비 462백만원)
2년차(‘21년) 사업비 : 2,313백만원(국비 1,609백만원, 지방비 694백만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온실 밀집지역 내 노후온실을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지원해 규모화 된 스마트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화 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4개 시도(경북, 전북, 경남, 경기)가 신청해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북 포항과 전북 고창이다. 2월 2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서류평가, 입지조건에 대한 현장조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진행했다. 계획의 타당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상주시),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안동시)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로써 첨단 기술 도입 발판 마련과 전문가 참여로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기쁘다” 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농부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경북도의 농가 모두가 소득이 향상되고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농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 선정 결과

❖ **포항 흥해읍 시설원예단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선정**

❖ **노후온실 현대화 · 자동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개보수, **스마트팜 도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2년간)

* 전국 4개소(포항, 고창, 김해, 고양) 신청하여 2개소 선정(포항, 전북 고창)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8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48ha(32 농가)

* 작물재배 : 딸기 9.7ha(44%), 부추 5.5ha(25%), 토마토 · 시금치 6.8ha(31%)

○ 사 업 비 : 3,854백만원〔국비 2,698(70%), 지방비 1,156(30%)〕

○ 주요내용 : 도로, 용배수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개보수 등

향후계획

○ 참여 농가 사업 설명 및 추진 일정 서면안내(4월)

○ 농어촌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및 기반조성 설계 착수(4월)

사업위치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6(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작 성 자	담당관	강 돈 영	
			팀 장	이태옥	주무관 나광문
		연 락 처	054-880-2257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세무대리인이 무료로 지원!

- 전국 최초 조례개정을 통해 발 빠르게 납세자권리보호 추진 -

경상북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도에서 선정한 세무대리인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하여 도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했다. 전국 최초로 사업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추가 위촉도 할 계획이다.

선정 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의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 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고, 만약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대리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은 법인과 달리 전문성과 경제력

부족,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개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절차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